

여수 남면 안도·화태도, 행안부 섬 지역 특성화사업 최종 선정

섬별 10년간 최대 50억 원 투입...지속가능한 섬 마을 조성



여수시 남면 안도항

여수시 남면 화태도 독경항

여수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하는 2023년 도 섬 지역 특성화사업 15곳에 남면 안도와 화태도 등 2개 섬이 최종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여수시에 따르면 '섬 지역 특성화사업'은 지

속가능한 섬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섬 주민이 조직체를 구성하고 마을 발전계획을 수립해 소득사업과 마을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추진 실적에 따라 섬별로 10년간 최대 50억

원이 투입된다.

남면 안도와 화태도는 2019년과 2020년 어촌뉴딜300 사업에도 선정돼 어항정비, 수산물 공동작업장 등 다양한 기반시설이 올해 준공 또는 준공 예정이다. 여기에 섬 지역 특성화사업에도 선정됨에 따라 마을 주력사업을 설정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 등을 제공받게 됐다.

시는 주민 조직체의 소득창출을 통해 지속가능한 섬 마을을 조성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안도와 화태도는 섬 고유의 문화와 생태자원을 보유한 곳으로 인프라 확충 및 주민 역량강화를 통해 가고 싶은 섬, 살고 싶은 섬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며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 개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코로나19에 상반기 사망자 '역대 최다'

출생아 13만명 아래로 '푹'...2분기 합계출산율 0.75명 '역대 최저'

■통계청, '2022년 6월 인구동향' 발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올해 상반기 사망자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수는 처음으로 13만명 아래로 내려가면서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상반기 출생아 12만명대...합계출산율 0.75명 '최저'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2년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출생아 수는 12만8138명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8116명(-6.0%) 감소했다. 이는 1981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적은 수준이다. 상반기 출생아 수가 13만명 아래로 내려간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노형준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주 출산 여성 연령대인 25~39세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첫 아이의 출산 연령도 상승하고 있다”며 “2012년부터 출산이 감소세를 보이면서 출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2분기 출생아 수는 5만9961명으로 전년도 6168명(-9.3%) 감소했다. 같은 분기와 비교했을 때 역대 가장 적었다. 출생아 수가 6만명 밑으로 내려간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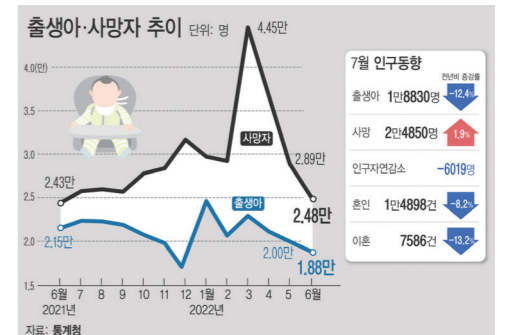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추정되는 합계 출산율은 1년 전보다 0.07명 감소한 0.75명으로 2009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다. 같은 분기 기준으로는 올해 처음 합계 출산율이 0.8명 아래로 내려갔다. 합계출산율은 2019년 1분기 1.02명을 기록한 이후 13개월 연속 1명을 밑돌고 있다.

6월 출생아는 1만8830명으로 전년도 2674명(-12.4%) 감소했다. 6월 기준 출생아 수가 2만명 아래로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79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내림세를 이어갔다.

◆상반기 사망자 20만명 육박...역대 최다

1~6월 사망자는 19만376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만1141명(27.0%) 늘었다. 198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동월 대비 증가율 역시 역대 가장 높았다.

2분기 사망자 수는 9만406명으로 전년도 1만5353명(20.5%) 늘었다. 사망자 수와 증가율 모두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전까지 2분기 사망자가 9만명을 넘긴 적은 한 번도 없었다.



2분기 조사사망률(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은 7.1명으로 전년도보다 1.2명 늘었다. 남성은 1.0명 여성은 1.2명 증가했으며 85세 이상의 경우 남성은 26.7명, 여성은 26.6명 증가했다. 6월 기준 사망자 수는 2만4850명으로 1년 전보다 452명(1.9%) 증가했다. 같은 달 기준으로 6월 사망자 역시 역대 최대다. 조사사망자 수는 5.9명으로 집계됐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증가는 -6019명이다. 2019년 11월부터 32개월 연속 인구 자연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2분기 기준으로 자연증가는 -3만445명이다.

◆상반기 혼인도 '최저'...이혼 25년 만에 가장 적어

혼인 건수도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 혼인 건수는 9만3111건으로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1337건(-8.2%) 감소했다.

2분기 기준으로는 4만7734건으로 전년도보다 515건(-1.1%) 감소했다. 이 역시 역대 가장 적었다. 연령별 혼인율(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은 남성의 경우 30~34세(40.7건), 여성은 25~29세(37.2건)에서 각각 1.8건, 2.2건으로 가장 많이 감소했다.

혼인 종류별로 보면 남성 초혼은 209건(-0.5%), 재혼은 342건(-4.4%) 감소했다. 여성 초혼은 95건(0.2%) 증가한 반면 재혼은 636건(-7.1%) 줄었다.

6월 혼인 건수는 1만4898건으로 전년도보다 1337건(-8.2%) 감소했다. 지난 5월에 1만7041건(5.5%) 늘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뒷걸음질했다. 1~6월 이혼 건수는 4만5533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894건(-11.5%) 줄었다. 같은 달 기준으로 1997년(4만4434건) 이후 25년 만에 가장 적었다. 뉴스

금·토요일 쉽니다 홈페이지 i-honam.com

무안빨낙지거리 활성화 모색...단품요리·한상요리 개발

관내 22개 '맛도남도' 음식점 중 신청 받아 레시피 보급 계획



무안군은 무안읍 무안빨낙지거리 활성화 위한 단품요리와 한상요리 등 무안의 맛을 알릴 요리를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전남도에서 지정한 음식거리 '맛도

남도' 중 하나인 무안빨낙지거리 내 음식점 7개 업소 대표와 공동으로 방문객 유입을 위한 TF팀을 구성했다. TF팀은 지난 3월 첫 간담회를 시작으로 8월까지 10차례 모임을

갖고 음식 개발에 나섰다.

이를 통해 낙지 단품요리로 수제간장소스를 이용한 낙지비빔밥, 낙지떡갈비, 낙지 묵밥, 낙지양파버섯담밥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또 10만원 선에서 방문객들이 모든 낙지 요리를 맛볼 수 있도록 낙지탕탕이, 낙지초무침, 볶음, 연포탕을 세트 메뉴로 묶어 빨낙지 한상을 구성했다.

군은 관내 22개 '맛도남도' 음식점 중 최종 확정된 단품요리와 한상요리 판매를 원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레시피를 보급할 계획이다.

김산 군수는 “무안빨낙지거리의 단품요리와 한상요리를 적극 홍보해 무안의 맛을 널리 알리겠다”며 “관광객들이 만족하고 다시 찾아오시도록 음식점들의 맛, 친절, 위생수준 향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건강한 밥상의 시작

청정엘로우시티 장성 먹거리